

아직도 가야할 길

2022년 7월

최병옥 정나영

이곳 피지는 훌쩍 커버린 사탕수수가 익어가고 있습니다. 사탕수수 공장에서는 달달한 냄새와 함께 검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녁이면 저 멀리 모스크의 스피커 소리가 들리고 힌두교인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모습을 봅니다. 밭에서 일하던 인도인 농부 아저씨가 막 밭에서 거둔 양배추를 주려고 도로가로 뛰어나와서는 제 손에 안겨줍니다. 내일은 그 아저씨의 집에 방문해서 아픈 아들을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루실라 자매님의 순직과 DTS 제자훈련학교

Rabi 섬 선교 출발 전 날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루실라 자매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전화였습니다. 루실라 자매님은 5년 전에 문이 닫힌 라우토카 베이스의 마지막 남은 사역자였습니다. 다시 베이스를 열기 위해 작년부터 저희와 함께 기도하며 DTS 제자훈련학교를 시작했습니다. 자매님이 돌아가신 날은 제자훈련학교 12주강의 기간 중에 마지막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학생들과 함께 한 저녁식사가 마지막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Rabi섬 전도 팀을 먼저 섬에 보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루실라 자매님의 장례를 준비해야 했습니다. 루실라 자매님의 딸이 루마니아 선교사로 있기에 딸이 피지에 도착하기까지 2주를 기다려야했습니다. 루실라 자매님은 싱글 맘으로서 슬하에 두 자녀(Peni & Selina)가 있습니다.

제자훈련학교 학생들은 1월부터 6월까지 모든 훈련 과정을 마치고 6월 22일 10명의 학생이 수료했습니다. 이를 통해 6명의 사역자가 세워졌으며 라우토카 지역에 새로운 사역팀이 결성되었습니다. 중국으로 가고자 했던 B자매님이 2년간 라우토카 리더로 섬기기로 하였습니다.

Rabi 섬 선교

섬 선교팀은 배를 갈아타며 24시간이 걸려서야 밤늦게 람비섬에 도착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오기에 준비해 간 등유를 넣고 발전기를 돌리고, 수돗물이 안 나오기에 산 계곡을 막고 그 물로 마시고 씻고 합니다. 람비섬에 사는 원주민들은 적도 근처에서 이곳 피지로 강제 이주된 남아시아 바나반 민족입니다. 선교팀은 네 곳 마을을 돌며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달 동안 성경 캠프와 청소년 제자훈련사역 그리고 마을 청소와 페이트 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람비섬의 청년들을 9월에 열리는 제자훈련학교에 초대했습니다. 9월 제자훈련학교에 가능한 많은 바나반 청년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람비섬 선교를 위해 보내주신 헌금은 섬선교 팀원의 왕복교통비, 한달 간의 어린이 청소년 집회를 위한 비품과 식자재 구입 그리고 발전기용 등유와 태양열 충전기 구입비로 지출되었습니다.

피지 코로나 상황

이곳 피지도 코로나 변이로 인하여 사망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저희 가족이 오미크론에 감염된 후에도 두세 차례 인후염과 콧물과 근육통 안압 증세를 앓았습니다.

DTS 제자훈련학교를 위해 교회의 예배당과 교육관을 빌려주신 BILL 목사님이 코로나 증세로 돌아가셨습니다. 빌 목사님은 저와 자주 만나고 교제하는 친구이셨습니다.

저희 베이스 사역자 Liku 자매님의 어머니가 코로나 증세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장에서 야채가게를 하시면서 저를 보시면 불러서 호박이며 야채를 주시고, 저희 베이스 사역자들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Covid 백신 정책과 YWAM 분열과 모임

3년만에 피지의 YWAM 사역자들이 모여서 2박 3일간 모임을 갖었습니다. 피지 정부의 정책에 의하여 제가 속한 단체 이사회에서는 미접종자 모두를 해고한 바 있습니다. 피지에서는 백신 미접종자 공무원 교사 일반직장인 목사 비영리단체 봉사자 모두가 해고되었습니다. 제가 단체에 제안한 미접종 사역자에게 온라인으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자는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표로 있는 저희 베이스에서만 미접종 사역자들이 온라인으로 사역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베이스에서 리더쉽이 붕괴되거나 탈퇴와 분열 등 안타까운 상황을 보며 모두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사역의 장을 열기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베이스 사역자 소식

- 저희와 오래 사역한 쿠시 형제와 키니 자매가 결혼하여 아들(사무엘)을 출산했습니다.
- 조비 형제와 리티아 자매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매 부모님이 선교에 대하여 이해가 없으시기에 사위가 될 조비 형제에게 직장과 집을 요구하십니다.
- 사라자매님은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기 위해 휴직하였습니다.
- 아이삭형제님은 지병으로 쓰러지신 어머니를 위해 휴직하였는데 이번 9월 제자훈련학교 사역자로 복귀하기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 DTS학교 교장과 BCC 학교 교장으로 섬기는 라뚜형제와 바자매에게는 5명의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자비량으로 사역하다보니 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적어도 자녀들이 굶지 않도록 적어도 밤에 형광등이라도 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이 차비가 없어 학교에 못가거나 도시락이 없어 굶지 않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사역자들의 집 월세와 필요를 채우기에는 저희로서도 힘겨운 일입니다.
- DTS 제자훈련학교를 섬기는 22살의 루시자매와 20살의 엘리시자매는 친자매로서 저희와 사역한지 2년이 되어갑니다. 루시자매는 찬양인도도 겸하고 있습니다. 자매들의 부모님도 피지의 북성 ywam 사역자로 계시는데 힘겹게 생활하기에 저에게 두 딸을 맡기셨습니다. 루시자매와 엘리시자매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아오기도 하고 주변 인도인 농장에서 툼툼히 일하고 공동생활비를 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가 지원해야 사역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습니다.

9월 제자훈련학교

9월 3일에 여는 이번 제자훈련학교는 람비섬과 외진 작은 섬의 청년들을 대상으로 열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작은 섬에서 먼 바다를 보며 기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가난

하지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의 부르심에 헌신하여 이번 제자훈련학교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섬 청년들을 위한 제자훈련학교를 열기위해 7명의 사역자를 세우고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개월 동안 함께 생활하며 새벽 묵상, 오전 예배와 강의, 오후 소그룹과 일대일 면담, 오후 노동과 저녁일과로 진행되며 12주 동안 12가지 주제로 훈련을 실시합니다. 그후에는 두 달간의 전도여행이 있는데 멀고 외진 섬지역으로 갈 것입니다. 5개월간의 학비와 공동생활비로 일인당 백오십만원이 필요합니다. 섬 주민들은 물고기를 잡거나 밭의 야채를 팔아서 쌀과 생필품 연료를 구입합니다. 가난하기에 학비를 낼 수 있는 형편이 안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일부 학비와 외부 장학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학금이 필요합니다.

가정 이야기와 12월 한국 방문 계획

지금까지 저녁이면 쓰레기 연기로 더운 여름 창문도 못 열고 힘들었는데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방 2개 월세집으로 이사하고서는 아무때고 창문을 열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피지에서 신혼 여행가는 좋은 곳은 리조트나 인적 없는 섬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은 쓰레기를 태워서 소각합니다. 비포장 흙먼지가 집안으로 들어오지요. 원주민들은 취사 연료를 나무나 코코넛 말린 것 또는 패트병 또는 석유풍로를 사용해요. 수도물도 주요 도시만 나오는데 수압이 약해서 나오다 말다해요. 올해도 저희 가족 휴가는 미루어야겠습니다. 원주민 사역자들 지원하다 보면 늘 재정문제로 미루다 보니 가족 휴가 가 본지가 5년이 넘은 거 같아요. 친구가 보내주는 휴가비도 사역비로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딸들 생일 날 친구들을 초대하거나 한달에 한번 베이스 사역자들과 함께 닭고기와 소시지로 풍성한 식사를 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들 은평이는 군 제대 후에 수원 친할머니와 함께 지내며 영어학원 시간강사로 있습니다. 내년엔 3학년 복학할 것입니다. 한나는 방학동안 이곳 피지에 왔습니다. 기숙사에만 있던 딸이 힘들어하기에 피지로 불렀습니다. 부모님이 있는 집에 있는 것만으로도 한나가 무척 좋아합니다. 2년 반 만에 딸을 만났습니다. 한나는 온라인으로 영어과외와 번역 아르바이트도 하고 학과 임원도 했어요. 학교 성적은 떨어졌지만 좋은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은평이를 못 본지는 4년 7개월이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아버지로서 미안한 것은 대학에 보낸 후에 군대 갈 때도 복무 중에도 전역할 때도 찾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한나가 피지 올 때도 아들은 오지 못했습니다. 올해 겨울에 가능하면 한국에 방문하여 어머님도 찾아뵙고 어머님 거취문제도 상의하고 아들 은평이 양약수술도 알아봐야겠습니다. 가족이 다같이 모여 밥도 먹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뵈지 못한 여러분도 뵈고 교제하고 싶습니다. 아내는 수술한 오른쪽 어깨는 상태가 좋는데 왼쪽 어깨에 통증이 있습니다. 한국가면 검사해 봐야겠습니다. 저 또한 미루었던 건강검진과 서해부탈장 수술을 받아야겠습니다. 셋째 한비(은경)가 올해 고3입니다. 한국의 대학을 알아보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12월에 한국에 가면 대학 입학식에 참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지혜는 고1입니다. 한비와 지혜는 온라인으로 이집트에 계신 선교님으로부터 주1회 피아노를 배우고 있어요. 음악과 미술이 교과과정에 없는 피지 학교이기에 주1회 피아노 배우는 것이 얼마나 귀한 지 모릅니다.

기도 제목

1. 신실하게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쓰임 받는 가족되게 하소서.
2. 저희 가정이 있는 싱가포르 베이스, 코로나로 철수했던 수바베이스 재건과 사역팀 파송, 라우토카베이스 재건과 사역팀 사역자들이 견고히 서게 하시며, 공동생활비와 사역비가 늘 공급되게 하소서.
3. 9월 제자훈련학교 : 특별히 소외된 섬에서의 20명 학생 모집과 학교 장소(강의실과 숙소) 마련 위해 기도해주세요. 낙도 섬 학생들에게 필요한 학비가 공급되게 하소서. (1인당 5개월 학비 공동생활비 전도여행비 : 150만원)
4. 12월 저희 가족의 한국 방문과 필요한 4인 항공비 그리고 한국에서의 치료와 여러분들과의 교제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5. 2023년부터 2030년까지 남태평양의 청년들과 함께 아시아와 중동권에서 베이스 개척과 사역이 일어나게 하소서.
6. 4륜차량구입(중고픽업트럭 2,400만원/신형4,800만원)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차량지정헌금은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7. 저와 자녀들의 비자를 받았습시다만 아내 정나영선교사의 비자가 진행중입니다. 비자를 위해 기도해주시시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와 자녀들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최병욱 정나영 선교사 드림

피지 YWAM 대표사역자 & YWAM YOUTH CENTER 책임자

이메일 mercycbo@empas.com

주 소 Po box 1140 Sigatoka, Fiji Islands

후 원 국민은행 203 24 0471 172 최병욱